



농협 전주시지부, 2036 하계올림픽 전복 유치 염원

2036 하계올림픽 전복유치를 기원하며 전북도 일원에서 여러 기관들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가 3일 2036 하계올림픽 전복 유치를 기원하며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하양진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내건 메시지를 통해 전복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2036 하계올림픽 전복 유치를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하양진 지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는 전북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농협전주시지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협 전주시지부는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과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농축협의 성장·발전 지원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커스텀피스, 적십자사에 330만원 상당 쿠션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익산에 위치한 커스텀피스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해달라며 330만원 상당의 핸드워머 쿠션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커스텀피스 김미주 대표는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을 것 같다"며, "핸드워머 쿠션을 받아보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스텀피스는 미디어교육 전문 업체로 브랜딩, 마케팅 교육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유승호 정읍 신태인읍장, 부의금 일부 장학금 기부

정읍시 신태인읍 유승호 읍장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1월 31일 유승호 읍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유 읍장의 부부상 부의금 일부로 마련됐다.

그는 "고인의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미래를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승호 읍장은 지난해 9월 신태인읍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읍=김기두 기자



권혜정 남원 향교동장, 지역 어르신들 찾아 위로

남원시 권혜정 향교동장은 설 연휴가 지난후 자녀 등의 방문 후 빈자리가 외로울일 어르신들의 방문에 나섰다.

이에 한 어르신은 "연휴가 길어 비싼고 멀리 살아 자주 보지 못한 자녀와 손녀 손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여 즐거웠으나 연휴가 끝나니 북적북적했던 곳이 다시 조용해져 쓸쓸해지는데 동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오소도소 말벗이 되어 아슬운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었다"라고 좋아했다.

이에 권 동장은 "빨, 머느리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떨지 심부 이해한다며, 1일가구 방문으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니 감사할 따름으로, 언제나 어르신들 옆에서 늘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71대 윤순풍 전주교도소장 취임

2024년 부이사관 승진... 창원교도소장 거쳐 2월 3일 부임

전주교도소는 2월 3일자 법무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제71대 전주교도소장으로 윤순풍 부이사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순풍 소장은 1992년 교정직 7급으로 임용,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청주교도소 소장,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청주교도소장장을 역임하였으며, 2024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창원교도소장을 거쳐 2월 3일자로 제71대 전주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윤순풍 소장

윤순풍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도모하여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자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소장은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전주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전주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하여 좋은 추억을 가졌는데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장인 안영삼 소장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으로 전임됐다. /오만호 기자

전북소방본부-여성가족재단, '119통역봉사단' 위촉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와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지난 3일 도청 17층 작업실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119통역봉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새롭게 지정된 119통역봉사단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 지역사회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인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2023년 4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 전북거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주 여성과 유학생들로 구성된 119통역봉사단을 운영해 왔다. 119통역봉사단은 현재 15개 국어를 지원하는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북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119통역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119 통역봉사자 모집 및 운영 △노내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한 119 신고 요령 교육 △외국인의 119 신고와 관련한 자료 협조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119통역봉사단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119통역봉사단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19통역봉사단은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부금 3천만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만호 기자



숙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119통역봉사단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19통역봉사단은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부금 3천만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만호 기자

장수군청 서기관 승진자 3명, 장학금 300만원 기탁

장수군 2025년 서기관 승진자들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쾌척했다.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에 따르면 올해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장수군 공무원들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기탁자는 3명으로 성영호 농산임강실국장, 차주영 장수읍장, 황우상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본부장이다.

이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필요성에 공감해왔다"며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장수군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이사장은 "장수군청 간부 공무원들의 승진의 노고가 꾸준한 기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 드린다"며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캠프를 진행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시 도통동, 풍년칼국수와 취약계층 지원 협약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남원시청 동로 '풍년칼국수' (대표 형노준)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을 지원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와 풍년칼국수 대표,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석,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 전개 및 상호 협력적 유지관계를 약속했다.

이에 이번 업무 협약으로 도통동 1일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에서 발굴된 소외계층에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해 따뜻한 나눔을 실현하게 되었다.

형노준 대표는 "나의 부모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

진안군은 3일 군청 군수실에서 2025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행정 인턴으로 선발된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 요령 교육과 민원인 응대를 위한 안내교육 등을 진행했다.

대상자들은 3일에서 28일까지 분청과 면 행정복지센터(백운면, 상전면), 진안군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진안읍, 정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배치되어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회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전준성 진안군수는 "이번 대학생 행정인턴의 경험이 자립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고향인 진안군에 보탬이 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안군은 2018년부터 행정인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 동백로타리클럽, 서신복지관서 떡국나눔 봉사

전주 동백로타리클럽(회장 이대성)은 지난달 24일, 전주 제일로타리클럽(회장 박비오)과 서신노인복지관에서 새해 사랑의 떡국나눔봉사를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어르신들께 떡국 500인분을 대접해 설 명절의 온정을 나눴다.

특히 이번 떡국나눔봉사에에는 이상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을)과 양영숙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최명철·정성길 전주시의원,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일손을 도왔다.

이대성 전주동백로타리클럽 회장은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드시고 올 한해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 곳곳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잇따라

남원시 각 읍면동에서는 읍민과 함께 앞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될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있다.

3일 동충동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공약형) 참여자 어르신 40명을 급동 행정복지센터는 82명, 이백면도 어르신 40명, 보절면은 10명으로, 발대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동시에 어르신의 안전한 활동을 돕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안전교육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에서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보건소, '찾아가는 구강이동교실' 운영

치과 가기 힘든 지역주민을 위해 정읍시 보건소가 직접 찾아가는 '구강이동교실'을 운영한다.

시 보건소는 치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과 의료인 구강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구강이동교실은 치과공중보건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운영팀이 4월부터 3월 21일까지 영원면과 이평면의 62개 마을을 방문해 개인 맞춤형 구강보건 예방 서비스와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구강병 조기 발견을 위한 구강검진 △치주질환 예방과 구강 위생 관리를 위한 스케일링 △시력 이 완화를 위한 불소도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 간헐적 관리법, 틀니 관리법 등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보건소는 이 같은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계획으로 오는 11~12월에는 정우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이동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구강 관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구강이동교실을 꾸준히 운영하겠다"며 "주민들의 구강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강이동교실은 △2022년 산내면 △2023년 북면과 감곡면 △2024년 웅동면, 칠보면, 태인면 등지에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